

## 서울의 영어 상용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 서울 시민의 문화적 유연성과 영어 친숙도 제고를 위한 제언 -

김 경 일\*

## How to Make English Public Language in Seoul

- Some Suggestions to Increase Seoul Population's Cultural Flexibility and Familiarity with English -

Kyung Il Kim\*

**요약** :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서울시가 영어를 공용어가 아닌 상용어로 채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은 세계화의 환경 속에 노출된 서울시민들이 정체성을 유지한 문화적 유연성과 도구적 언어인 영어에 대한 가치중립적인 친숙도를 높여야 할 이유와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대책 제시에 앞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민족 문화의 건전한 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것과 한국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Diaspora)로서의 한국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8000만 가까이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어에 대한 애착 또한 남 다르다는 점을 들어 영어의 전반적인 공용어화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밝혀두었다. 즉 싱가포르나 인도처럼 일괄적 행정조치로서 영어를 법적 언어로 공식화한 나라들과 역사적 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을 지닌 서울의 경우, 영어의 공용어화를 정책적 선언을 통해 한꺼번에 이루려는 누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해 두었다. 이 당위성 앞에서 필자는 서울시가 영어를 공용어(Official language)로 삼기 위한 소모적인 논쟁에 빠져들지 말고 서울 시민들이 자유스럽고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용어(Public language)로 만들어 가야한다는 의견을 결론으로 제시했다. 특히 결론에서 영어 상용화의 출발 초기에 서울시는 특별히 사명감과 지혜를 발휘해서 새로운 2개언어사용(Bilingual) 문화를 창조해 가야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동북아시아 선도 도시의 이미지를 주도적으로 선점해야 한다.

둘째,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정체성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문화적인 오리엔테이션을 기반으로 영어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집중력 있게 실행해야 한다.

다섯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주제어** : 영어 상용화, 문화적 유연성, 영어 친숙도

**ABSTRACT** : It is certain that Seoul City needs to make English public language to enhance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Since the agenda of adopting English as an official language appeared, a fierce debate has raged, which continues unabated today. People who oppose

\* 상명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Sangmyung University)

adopt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argue that it would bring about the decline of Korean, and eventually lead to the destruction of the national identity. These arguments frustrate policy-makers. This article, in acknowledging both sides of the debate, presents a cultural reconciliation for those who continually come up against each other. In order to do this, the article analyzes the case of Singapore's success not only from a political viewpoint, but also in terms of cultural background. This is contrasted with the failure of the project in Che-ju, which was a joint initiative led by central government and Che-ju government, highlighting the cultural reasons behind its failure. The reason Singapore was able to perform its policy so successfully was primarily because of its cultural flexibility. The largest ethnic group in Singapore are the Chinese, and in the same cultural environment that covers most Asian countries, they adapted to English as an official language without any particular emotional upheaval. On the contrary, the people of Che-ju refused to accept English as an official language due to the feelings of national identity previously mentioned. Based on this research, the article suggests that Seoul City government needs to work on increasing the population's cultural flexibility and familiarity with English rather than focusing on adopting English as an official language. The article also includes some related political ideas.

**Key Words** : English as a public language, cultural flexibility, familiarity with English

## I. 들어가기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가 영어를 공용어가 아닌 상용어<sup>1)</sup>로 채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논문에는 세계화의 환경 속에 공통적으로 노출된 동아시아의 경쟁 도시들을 창의적으로 리드해 가야 할 서울시민의, 정체성을 유지한 문화적 유연성과 도구적

언어인 영어에 대한 가치 중립적인 친숙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동시에 제시되어 있다. 이와 아울러 서울 시민의 영어구사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취할 수 있는 단계별 대책도 제시되어 있다.

세계화와 국제화는 90년대 이후 세계가 우리 사회에 던진 심각한 문화적 숙제였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많은 논의가 있었다. 간단히 요약하면 개방에 따른 이익과 폐해를 둘러싼 공방이었다. 시대와 사회 속에 던져진 역사적

1) 일반적으로 '공용어(Official language)'란 단어는 원래 한 국가 안에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어 서로 간의 의사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혹은 국제연합(UN)처럼 여러 국가가 모여 만든 국제기구 안에서 국가 간 의사 소통을 위해 차용되는 언어의 개념이다. 즉 싱가포르가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나, 스위스가 독일어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서처럼 공용어란 해당 국가의 행정력이 그 언어의 활용에 대해 법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모국어와 똑 같이 보장해 주는 언어를 의미한다. 따라서 영어를 공용화할 때는 그 제반 비용 등에 천문학적 예산과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준비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반면에 필자가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용어'란 단어는 '공용어'의 개념에 비해 조금은 느슨한 형태의 사회 공통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활용을 위해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준, 보다 문화적 측면에서의 공통 언어라는 의미가 본문 내의 '상용어'에 함의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본문에서는 '상용어'의 영어 표기 역시 'Official language'가 아닌 'Public language'를 선택, 의미를 구별하려 하고 있다.

과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는 하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그것은 일면 소모적인 논쟁이기도 했다. 문명사적인 흐름 속에서 아젠다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 사회의 특성인 의미 없는 갑론을박 끝에 우리 사회는 IMF를 맞았었다. Post-IMF 시대에 알맞는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해 가던 많은 전문가들이 뒤늦게 지적하듯이 세계화와 국제화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대비가 있었다면 IMF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

국가 간의 교류 확대를 의미하는 국제화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자연스레 요구되고 있는 세계화 과정은 문명사적인 차원에서의 변이 과정이기도 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지구촌 차원의 상호의존성 증대와 기능성 제고를 의미하는 세계화는, 따라서 우리들에게도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대상은 아니다. 숙제는 던져졌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선택되거나 뒤로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오늘의 문제이자 내일의 현안이다.

하지만 여러 국제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세계화의 정도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등 기관에서는 그 이유의 첫 번째로 국가 정책의 미흡을 꼽고 있다. 두 번째로는 국민의식이 세계화와 너무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한국이 19세기에 국제화에 실패하여 지금까지도 그 부정적 여파가 진행되고 있음을 상기시켜 볼 때

다시 한번 우리 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으로 지적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화를 위한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환경의 조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영어활용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서울특별시, 2003)에 의하면 외국인 응답자의 85% 이상이 '외국인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영어 사용의 편리성'을 서울시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또 「동북아 금융중심지로서의 서울의 잠재력」을 조사한 맥킨지 보고서(2003) 역시 외국투자유치를 위해 시민들의 영어구사력 향상이 급선무를 지적하고 있어, 우리 사회 특히 수도 서울에서의 새로운 제도적 문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조금 침착하게 생각해 보면, 제도적이고 법률적인 딱딱한 대안에 앞서 보다 더 필요한 것은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조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문화적 환경 조성이다. 그리고 그 문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것은 외부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한 유연성과 도구적 언어인 영어에 대한 가치 중립적인 친숙도를 높이는 일이다.

## 2. 영어공용화 논란의 핵심

위에 언급한 여론조사 보고서나 맥킨지 보고서에 따른 위기의식이나 세계화 적응에 따른 대응 조치로 우선 들먹여지는 것은 영어의 공용화 정책이다. 영어공용화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될 수 있는 간단하고도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영어를 모국어나 외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살펴보면 그 숫자는 약 15억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숫자를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보면 그 내면에 담긴 정보의 진짜 의미를 놓치게 된다. 이들 숫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GDP는 전 세계 GDP의 약 40%에 해당된다(후나바시 요이치, 2001). 영어를 배경으로 한 문화권의 경제적 힘의 크기를 잘 보여주는 수치다. 또 Global Reach의 Global Internet Statistics(by language)에 의하면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 47.5%, 중국어 9.0%, 일본어 8.6%, 독일어 6.1%, 스페인어 4.5%, 한국어 4.4%, 프랑스어 3.7%, 러시아어 2.3% 등이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터넷 검색 정보의 80% 이상이 영어로 되어있다(석용영, 2000). 영어의 힘을 설명하는 이러한 정보들은 단순한 정보라기보다는 거의 '언어' 협박에 가까운 내용들이다. 더구나 영어로 된 정보를 전 세계 사람들과 동시에 읽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PC에 장착된 모뎀의 속도에 따라 정보의 값이 출렁일 수 있다는 미래학자들의 예언은 정보의 고속도로 앞에 나 섰은 우리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환경이 조성해 내는 위협을 감지해 낸 북거일(1998, 2001, 2003)은 세계어인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궁극적으로 모국어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 중간 과정으로 영어를 공용어로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 역시 만만치 않다. 영어공용화는 결국 한국인의 아류 미국인화를

불러올 것을 우려하는 상대적 문화주의 입장(김영명, 2000)이 있는가 하면, 한국어 순수성의 피탈을 우려하는 입장도 있다(조동일, 2001). 그런가 하면 영어를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용어로 선포하는 것에는 반대하면서도 영어 교육의 강화와 수정을 통한 대안책을 모색하려는 입장(한학성, 2000)이 있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생산적인 담론은 처음부터 불가능해 보이는 영어공용화의 문제에 대한 찬반의 의견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찬성 : 영어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코드다.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할 경우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의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맹자(illiteracy)가 된다. 따라서 영어의 실용화 대중화를 통해 한국인의 인식 지평을 세계적 차원으로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 개개인의 국제 경제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

반대 : 선부른 영어공용화는 우리말, 글만 망가뜨릴 뿐이다. 민족문화 정체성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망국병인 과외열병과 사대주의병을 부채질하고 민족을 분열시킬 것이다. 또 남북통일을 저해할 수도 있다. 당장 영어가 필요한 외교관, 학자, 무역업자들의 영어 능력 제고가 우선이다.

이런 목청 높은 토론 분위기에 압도당해 누구도 선뜻 영어공용화는 물론 그와 관련된 제 3의 의견조차 쉽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사실 이런 담론은

규범(norm) 속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절박한 현실(reality)속에서는 의미가 없다. 물고기를 생물학적으로 아무리 깊게 이해를 해주어도 물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건 결국 물고기를 죽이는 결과를 낳는 것과 같은 이치다. 때문에 행동을 마냥 미루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회와 역사에 대한 책임 회피의 성격도 있음을 느낄 필요가 있다.

### 3. 영어공용화의 가능성 탐색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이 의사 소통을 하기가 참 힘들다. 언어의 장벽은 원활한 업무 진행을 가로막는 큰 장벽이 될 수 있고, 한국에서 일하는 수많은 외국기업인들이 가장 절실하게 호소하는 문제점이다.’(문화일보, 2003)라고 하는 호소에 너무 미안해 할 필요도 없지만, 현존하는 6700개 언어 가운데 21세기가 지나는 동안에 절반 또는 90% 이상이 영어 때문에 소멸되어 갈 것이라는 언어학자들의 낮익은 주장들에 한국어를 떠올리며 미리 불안해 필요는 더구나 없다.

우리 사회는 좀더 냉정해 져야 한다. 물론 영어를 공용어화 하는 데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이미 50%를 훌쩍 뛰어넘어 1999년 11월 EBS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63%에 달하고 있고(한학성, 2002), 2000년 11월 주간조선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60%에 달하는 등 네티즌들이 영어 공용어화를 지지하고 있다는(김세중, 2001) 사실은 우리 사회의 영어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 사회의 문화적 심층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언어 사용을 %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문화는 다수결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어 선택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

사실 이들은 여론조사의 특성이 그렇듯이 감성적인 측면에서 영어공용화에 찬성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이들 숫자만을 근거로 영어공용화를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다지 사려 깊은 태도만은 아닐 것이다. 언어를 바꾸는 것은 유행에 따라 옷을 새로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영어의 전반적인 공용어화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전반적인 영어공용화는 민족문화의 건전한 성장을 막을 수 있다.

문화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화합과 이해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으며 성장해야 하는 독특한 생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인이 내놓아야 할 문화 상품은 한국인의 사고와 삶의 무늬가 담겨 있는 독특한 것이어야 한다. 이 점을 상기해 볼 때 준비 없는 영어공용화는 어리석은 짓이 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인이 보다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경쟁력은 따로 있다. 그 경쟁력은 우리 문화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민족문화이다(조동일, 2001). 특히 이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 틀림없는 아시아문화

속에서 스스로의 색깔을 미리 지워버릴 필요는 없다.

물론 여기서의 민족문화란 말을 수구적이고 좁은 의미의 '우리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세계인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신들만의 문화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문화적 근본으로서의 민족문화(장 피에르 바르니에, 2000)이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둘째, 세계 무대 속에서 한국어의 정보 가치가 허약하기는 하지만(김경일, 2001) 한국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Diaspora)로서의 한국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8000만 가까이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어에 대한 애착 또한 남다르기 때문이다. 또 일본에 의한 언어말살 정책을 체험한 역사가 있어 다른 언어를 동시적으로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점에 깊은 거부감을 지니고 있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 부분은 감성에 치우친 부분이 없지 않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감성 역시 고유문화 창출의 중요한 원동력 중의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 심중에 자리하고 있는 영어 콤플렉스(정시호, 2000)를 지혜롭게 다루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때문에 싱가포르나 인도처럼 일괄적 행정 조치로서 영어를 법적 언어로 공식화한 나라들과 역사적 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을 지닌 서울의 경우, 영어의 공용어화를 정책적 선언을 통해 한꺼번에 이루려는 누를 범할 필요는 없겠다.

#### 4. 제3의 대안 모색

하나 흥미로운 것은 영어공용화에 반대하는 주장들 역시 영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한다는 면이다.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망상」의 일침 속에 담긴 '민족어를 지키기 위해 영어를 배격하자는 것은 아니다.'(조동일, 2001)라는 언급이나 「영어 찬미자들에게 엄중 경고함」의 글 속에 담아둔 '영어를 잘해야만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어찌해볼 수 없는 사실이다.'(정시호, 2000)라는 속내 속에서 우리 시대의 고민을 함께 느껴볼 수 있다.

하지만, 경쟁 관계에 있는 주변 나라, 도시들의 변환 상황을 눈앞에 보면서 언제까지나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역시 냉엄한 현실이다.

홍콩은 영국 식민지의 과거를 지녔으니 그렇다고 치자. 일본 총리자문기구 보고서의 국회, 정부기관의 발표문과 간행물을 영어로 하자는 제안이나, 영어공용화를 심도 있게 논의한 '21세기 일본의 구상' 등의 간담회 정도는 그러려니 하며 지나쳐 버리자. (일본인들 특유의 검토, 정리, 준비 문화를 잊지 않는다면 그들이 내놓을 새로운 정책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는 것이 현명한 태도일 것이다.) 하지만 사회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꿈틀대고 있는 중국인들의 영어에 대한 집착, 그들 표현 그대로 'Crazy' 그 자체인 중국인들의 변모는 그대로 지나치기에는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 아니 두려운 점이 있다.

특히 세계화를 '전 지구의 일체화(全球一體

化)’로 해석하면서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의 국제화 수준에 걸 맞는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국제 사회의 궤도에 접합(國際接軌)’을 시도해 가는 상하이, 베이징, 썬썬 등 대도시의 노력은 단순히 인접 도시인 서울에만 위협을 가하는 상태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영어공용화가 불가능한 중국이지만 그 내면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공원 등지에서 일정한 시간에 모여 영어로만 대화를 나누는 시민 이벤트는 이젠 가십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영어는 기본’이라는 중국 대학생들은 이미 일본어 등의 제3외국어로 눈을 돌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WTO 가입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대학 강의들의 영어화 정책, 어린이 영어-중국어 이중언어 신문을 창간(2003년 9월)하는 등으로 영어의 휴먼 인프라를 구축해 가고 있는 중국의 변화된 힘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큰 충격으로 우리 사회에 다가올 것이다. (앞으로 약 10년 안에 적어도 15세에서 30세까지의 중국인의 약 2억 이상이 영어로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필자는 추정한다. 또 문학, 사학, 철학의 일부 범주를 제외한 대부분 학문 영역의 논문이 영어로 작성되게 될 것이다.) 또 정부 관료들부터 영어 이름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타이완의 영어 활용도 역시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손꼽히고 있다는 사실은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무언가 심각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조언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가 이룩한 영어의 경제적 효

과와 중국어의 문화적 시너지효과를 목도한 말레이시아 역시 영어와 중국어 등을 공용어로 채택하면서 제2의 싱가포르가 되겠다는 정책을 추진해가고 있는 사실 역시 서울 시민이 눈여겨보아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상하이 등 중국 대도시들이 ‘동양의 파리’라는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공무원과 대외관계 인원들에게 진행하고 있는 영어 교육 강화(김경일, 2001) 역시 제2의 싱가포르를 노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곤란한 부분들이다.

특히 단순히 수도로서의 이름만이 아닌 동북아시아의 거점 도시로 거듭나야 할 서울시는 이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역량이 한국을 리드할 수준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지닌 서울시는 이런 면에서 한국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심각한 대비책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또 실행 가능한 정책을 통해 좁게는 서울시민, 넓게는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해 현실적인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절실하게 필요한 대비책이 일괄적이고 전반적인 영어공용화 정책으로 바로 이어질 수는 없다. 또 이어져서도 곤란하다. 역시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영어의 공용어화 정책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능력을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시키기보다는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주변의 역동적 변화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적 성향들을 고려하면서 시도되는 제3의 대안이다. 즉 본 논

문은 서울시가 어떻게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문화적 유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또 영어를 전반적으로 공용어화하지 않으면서도 영어에 대해 가치 중립적인 친숙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영어공용화에 대한 또 하나의 지루한 논란의 장이 아니다. 논란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실용적 아이디어의 제시이며 블루 프린트이다

## II. 서울 시민의 영어구사 능력(수준) 검토

### 1. 서울시민과 싱가포르 시민의 일반적 영어 구사 수준 비교

서울 시민의 일반적 영어 구사 수준이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한 계량적 수치는 없다. 단지 앞서 언급했듯이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서울 체류 외국인들의 체감 증언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서울특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서방 기자의 '담당 공무원과 몇 차례 영어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외국 언론과 전혀 어색하지 않게 인터뷰하는 싱가포르나 홍콩의 공무원을 생각해 보라(송용희, 2000)'는 투정은 영어 구사 수준에 있어서 서울 시민들이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 가를 잘 보여준다. 또 행정과 경제분야에서는 영어를 공식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도 서울의 경우와 비교된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 위치한 정치경제 위험컨설팅(PERC)이 아시아 12개국 중 우리나라를 영어 소통이 어려워 외국인이 살기 가

장 힘든 나라로 지목한 사실(매일경제, 2001) 역시 서울 시민들의 영어 구사 수준을 간접 평가할 수 있는 자료다. 이러한 평가들은 그 평가의 절대성 여부를 떠나서 한국투자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다.

특히 아시아의 허브 도시로서의 독점적 역할을 거의 굳혀가고 있는 싱가포르 시민들의 모습은 서울 시민들의 영어의 현주소를 선명하게 대비해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싱가포르의 영토는 서울의 크기와 맞먹지만 인구는 불과 300만에 불과하다. 석유나 가스는 물론 마시는 물까지 절반은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해 오는 나라이지만 스위스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경영개발연구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에 의해 매년 경쟁력 세계 2위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싱가포르가 이처럼 국제사회로부터 매력적인 찬사를 듣는 이유는 비전 있는 지도자, 깨끗한 정부, 효율적인 인프라, 보이지 않는 화교들의 네트워크 등의 이유가 있다. 하지만 누구나 지적하듯이 싱가포르가 지니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매력은 모든 국민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게 지니고 있는 경쟁력 싸움에서 생활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이 조성해낸 시너지 효과와 문화적 부가가치의 실체가 이토록 엄청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1956년 이중언어교육정책(Bilingual Education Policy)을 통해 공용어로 등장한 영어는 2000년도 통계에 의하면 싱가포르의 15세 이상 시민들 약 71%에 의해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되



고 있다(서울특별시, 2003). 또 학교교육의 전 과정에서 영어가 필수로 선택되고 있으며, 행정과 경제 분야에서는 영어가 공식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싱가포르의 영어 외에도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4개 공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때문에 이른바 싱글리쉬의 별명과 함께 독특한 영어를 구사하기도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1999년부터 표준 영어를 권장하는 캠페인(SGEM, Speak Good English Movement)을 전개하면서 시민들의 영어 구사능력이 국제적 흐름과 궤를 같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서울 시민들의 영어 환경과 크게 대비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특히 인터넷이 새로운 의사소통 도구로 등장한 현 시점에서 '인터넷을 생각해 영어와 중국어 두 가지를 공용어로 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우리는 운이 좋았다.'(후나바시 요이치, 2001)라고 겸손해 하는 리짱야오 전 수상의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다. 더구나 영어가 자리를 잡아갔던 1980년대 이후부터 중국어 교육과 방송에 더욱 박차를 가해 영어와 중국어에서 비롯된 경제적, 문화적 열매를 동시에 가꾸어가는 싱가포르의 모습에 대해 칭찬을 아낄 필요는 없어 보인다.

## 2. 수준 차이 원인 고찰과 시사점 도출

싱가포르 시민들의 영어 구사 수준이 서울 시민의 그것보다 나은 근본적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싱가포르가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데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 사람들이 새로운 언어와 문화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데에는 다

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들이 숨겨져 있다.

### 1) 집중력과 지속성을 유지한 효율적 행정

앞서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싱가포르가 아시아 최고의 영어 구사능력을 구비하게 된 이유는 탁월한 지도자의 선견지명과 그것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가는 효율적 행정에 있다. 다시 말하면 77%의 중국계, 14%의 말레이계, 7%의 인도계 그리고 나머지의 유럽, 아랍계로 구성된 사회를 하나의 문화 그룹으로 묶어내기 위해 리짱야오 수상이 진행한 2개언어(Bilingual) 정책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 바로 오늘날 싱가포르 시민들의 영어 구사 능력이다. 즉 정부주도의 지속적인 정책과 캠페인이 만들어낸 노력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56년 채택된 2개언어(Bilingual) 정책이 효율적인 시행과 관리를 통해 나름의 효과를 보이기는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즉 1975년의 통계를 보면 당시 40대 이상 중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약 27%에 불과할 정도로(김경일, 2001), 정책 시행 후 20년이 지나서야 가시적 효과가 싱가포르 사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구성원 전체를 동시에 완벽한 형태의 2개언어사용자(Bilingual)로 만드는 일이 쉽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은 집중적인 행정력이 동원되어도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효과가 생기는 어찌면 인내심이 필요한 과정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 싱가포르의 또 다른 고민, 싱글리쉬에 대처하는 정부의 인식과 대안 역시 벤치 마킹이

필요한 부분이다. 즉 영어가 전 국민에게 제1 공용어로 자리를 잡기는 했지만 이른바 싱가포르 사람들만이 알아듣는 싱글리쉬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악센트나 지방색을 가미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독특한 문형이나, 어휘를 사용하는 범주가 넓어진다는 점은 영어를 받아들인 처음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 대해 싱가포르는 영어란 '국제 대화 능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싱가포르 시민들의 국지적인 영어가 아닌 국제적인 영어 사용을 돕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SGEM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관료, 언론,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전국적인 영어 수준 향상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보다 총체적인 개선 방법 모색을 위해 늘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 학교에서는 표준 영어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 \* 모든 영어교사들이 60시간의 재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 TV,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에서도 싱글리쉬의 사용을 줄이도록 권하고 있다.
- \* 교육부는 지역 언어 센터(Regional Language Center)와 공동으로 영어 표현에서 자주 범하는 오류를 고칠 수 있도록 핸드북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홍성화, 네이버검색).

2) 중국 언어 문화와의 연계를 통한 정체성 유지  
동남아 화교들의 핵심 거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싱가포르는 이미 중국 본토에도 '선별된 중국인'의 이미지를 근거로 새로운 중국인 상을 선도해 가고 있다. 동양의 월드 스트리트를 꿈꾸는 상하이 푸동의 도시 이미지가 싱가포르를 모델로 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또 중국 최대의 반도체 도시인 쑤저우의 건축물들과 거리, 환경 등은 중국 정부가 천명했던 대로 제2의 싱가포르로 손색이 없다.

싱가포르의 중국과의 문화적 연계는 싱가포르가 과거 영국 식민지였다는 씩씩한 과거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탈출구다. 특히 중국인과 중국문화를 바탕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들의 발걸음을 더욱 자신있게 만들고 있는 또 다른 이유의 하나는 1980년대부터 준비해 온 중국어의 한자코드 GB코드 때문이다. 1980년 중국은 ISO(국제표준화기구)에 한자코드의 국가 표준안인 국가 표준 GB2312-80을 발표하면서 6,763자의 중국어 간체자를 컴퓨터를 통해 정보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맹주억, 2000). 그 후 90년대 들어 중국은 다시 20,902자의 GB코드를 다시 공포하여 일상의 중국어 모두가 디지털 정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이 마련한 이런 문화적 인프라는 싱가포르를 물론, 화교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영어공용화 정책을 보이지 않게 뒷받침하고 있다.

즉, 언어의 상실로 인한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의식을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힘으로 바꾸어 놓은 중국어에 대해 문화적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이미 인터

넷 정보의 9.0%를 점하며 영어에 이은 두 번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이들 화교국가들로 하여금 보다 자신있게 영어공용화를 추진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영어의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시 말해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뿌리깊은 안도감과 자신감이 중국인들로 하여금 영어 앞에서 배짱있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점을 우리 사회는 곰곰이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영어공용화를 떠올리는 한국 사회는 더욱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중국 문화와 중국어가 뒤를 받쳐주고 있는 싱가포르의 모습이 점점 부러울 수 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 사회는 영어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하루빨리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며, 경쟁 관계에 있는 서울이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 3) 영어 학습에 있어서의 중국어의 언어학적 이점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싱가포르 사람들이 영어를 학습할 때에 중국어의 언어학적 유사성 때문에 영어 습득이 편리하다는 점이다. 싱가포르 시민의 주류를 점하고 있는 중국계 사람들이 영어를 습득할 때에, 우리와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점을 갖고 있다.

하나는 문장 구조의 이점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중국어와 영어는 S+V+O의 동일한 문장 구조를 있어 문장을 익힐 때 결정적으로 편리하다. 외국어를 익힐 때 누구나 자신의 모국어

의 문장구조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을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한국인이 영어를 익힐 때 느끼는 어려움이 일어를 배울 때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설명한다.

두 번째는 한국어와 비교해 볼 때, 한국어에는 없는 영어의 F, R, V, Z 등의 자음과 비음이 중국어에 있다는 점이다(김경일, 2001). 특히 F, R, V, Z 등의 자음과 비음 등은 싱가포르 화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남방 언어권의 방언 속에 북방의 맨더린보다 풍부하게 담겨 있어 그들의 영어 발음 구사에 보이지 않는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장 구조의 이점과 발음상의 이점 등은 한국인의 영어 학습 현장이나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의 중요 부분들과 중복된다는 점에서 싱가포르 시민들의 이점을 느껴볼 수 있다.

싱가포르 시민들의 영어공용화 과정에서 드러난 이러한 현상들은 서울 시민들이 영어를 상용화해 나가는 데 있어 필요한 어드바이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상용화 정책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영어 상용화 정책 실행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설립, 관련된 정책들이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의 확립이 영어를 보다 중립적인 가치로 받아드리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일방적이고 전반적인 공용어화 조치와는 달리 단계적이고,

부분적이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영어의 친숙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한국어를 모국어로, 영어를 하부 구조의 도구 언어로 사용한다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서 영어의 상용화 정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가야 한다.

셋째, 문장 구조와 발음의 유사성이 중국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한국어 특유의 상황을 고려하여 네이티브 스피커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 무조건적인 영어 접촉을 유도하기보다는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한국어와 영어의 구조나 발음상의 현격한 차이를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제 후술하겠지만 무료로 운행되는 'English 114'와 같은 서비스 센터를 만들어 시민들의 문법, 발음에 관한 질문을 수시로 해소해 가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 Ⅲ. 제주도 영어공용화 추진과정 검토

#### 1.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영어공용화

2002년 1월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근거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려는 프로젝트를 출발시켰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외국인 자유왕래와 의사소통 촉진을 위한 외국어 서비스 제공 안, 그리고 필요할 경우 영어로 된 문서를 번역 없이 관공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이른바 영어의 제2공용화 안이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외국어 구사능력을 개선하기 위

한 개별전략으로 외국 교육기관과 연계한 국제적 수준의 외국어학교 설립과 초·중·고교의 교육과정 강화 안이었다.

#### 2.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결림돌 검토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함께 진행된 영어공용화 정책은 법률이 제정되기도 전에,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 제안만으로도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본 논문의 도입부에서 언급했던 찬반 양론의 의견이 거의 비슷한 이유, 비슷한 레토릭을 통해 쏟아져 나왔다. 그 내용을 여기서 다시 펼쳐놓을 필요는 없지만 그 개략은 외국인투자자 등의 편의를 위해 영어서비스와 영어교육 강화방안(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2001)과 탐라를 식민지로 만들려는 반민족적 공염불(이현복, 2001)에 대한 비판의 불협화음이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03년 12월 현재까지도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성공적인 성취들은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다. 심지어 자료 수집을 위해 관련 공무원들과의 접촉에서도 만족할 만한 자료는 얻을 수가 없었다. 뭔가 움츠러들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필자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한 대학이 마련한 최고경영자 과정 강연(2002)에서 현지의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었다.

물론 그 당시 분위기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그리고 나름의 느낌은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는 실패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변 논문을 위한 자료 수집에서 느낀 분위기는 그 예감의 확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영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주도의 느린 발걸음은 반대 의견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라기보다는 제주도 자체내의 문화적 잠재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점을 허심탄회하게 인정하는 태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수려한 경관과 날씨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수세적 관광정책이 오랜 시간 진행되면서 제주도의 분위기는 자기도 모르게 소극적이고 덜 경쟁적인 상태로 변모한 것이다. 국제 관광지로서의 발전에 한계를 노정시키고만 것이었다. 낮은 수준의 발전은 마음의 상태라는 사회학적 지적이나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들이 세계 시장에서 가장 낮은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아이러니들이 제주도에 그대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지역과 동떨어진 지리적 여건에서 발효된 배타적 문화, 적극적 개발전략 없이도 찾아오는 국내 관광객들로 인한 방심이 제주도에겐 있었다. 그로 인해 치열한 자기개발보다는 자기 방어 문화가 피어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제주도의 전반적인 언어환경을 2개언어사용(Bilingual) 환경으로 바꾸어가야 하겠다는 지적 선도 그룹이 없었다는 점이다. 학계나 언론계, 관계, 기업 등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며 문화 인프라로서 영어를 이용해나가는 분위기가 없었다. 또 하나 민족적 정체성 확보를 위한 언어, 문화에 대한 적절한 대안도 없었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행

해 가는 집중력도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사실 제주도를 영어 공용어 추진도시로 선정한 것은 처음부터 실수였다고도 볼 수 있다.

### 3. 서울 영어 상용화에의 시사점과 착안사항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주도의 느린 발걸음은 반대 의견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라기보다는 제주도 자체내의 문화적 잠재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김창희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장의 진단처럼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해 해외자본이 유입되고 동아시아의 관광과 금융, 물류 중심지가 되는 것만이 제주경제의 유일한 활로(손원제, 2001)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성급하게 추진된 영어 공용화 정책은 대안이 아니었다. 이 글에서 길게 논할 바는 아니지만 제주도 발전의 핵심은 주민들의 언어 구사력보다는 주민들이 새로운 마음의 모델의 필요성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물론 충격 요법으로 영어 공용화 같은 급작스런 정책을 사용하려 했다면 더구나 실책이고 제주도 주민들에 대한 결례이기도 하다.

제주도의 어려움 속에서 서울시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의 세 가지로 생각된다.

첫째는 문화적 오리엔테이션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제주도는 영어라는 외국어를 가치 중립적으로 그리고 객관적 도구로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세계화에 대한 문화적 유연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영어 공용화의 급작스런 요구는 제주도로서는

무리였다. 그 보다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환경에 걸맞게 자신을 특화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서울은 세계화에 대한 문화적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문제점을 서울시에 직접 인용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태도다. 단지 서울 시민의 문화적 유연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동시에 같은 서울시라도 지역적 격차가 있을 것을 감안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는 전반적인 영어 공용화를 급작스럽게 밀어붙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이 제주도에 비해 문화적 유연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영어에 대한 언어 인프라도 비교적 구축된 편이긴 하지만 영어를 시민 모두에게 일시에 요구하는 정책은 옳지 않다. 따라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영어에 대한 친숙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상용화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특히 시민들이 영어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세계어로서 영어의 중요성에 급급해 준비 안된 시민들에게까지 학습 부담을 강요하는 누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보다 민주적이고 자유스런 분위기 속에서 영어와 그와 관련된 문화를 접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시정부의 역할이고 책임일 것이다.

셋째, 준비된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집중력 있고 효율적인 행정력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의 영어의 상용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확신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서울 시민의 영어 친숙도를 높여가려는 행동 그룹의 확보와 확산 노력 또한 필요하다. 즉 공감대를 이룬 효과적인 그룹들, 예를 들면 금융기관, 서비스 업종, 국제 교육기관 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효과적인 인프라로 재생산해 내는 마인드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IV. 서울시의 영어 상용화 실시를 위한 제안

##### 1. 문화적 유연성 확보

한국 사회에서 영어공용화 문제는 생산적인 결론을 얻기 어려운 주제다. 우선 공용어화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합의된 정의도 없을 뿐더러 이에 대한 논의는 평행선만을 그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사실 공용어(Official language)란 원래 한 국가 안에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어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나 UN처럼 여러 국가가 모여 만든 국제기구 안에서 국가 간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한학성, 2002). 이렇게 본다면 한국 사회에서는 근본적으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할 문화적 이유가 없어진다.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영어 공용화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음을 증명한다.

그 다른 이유는 이제껏 검토해 왔지만 영어

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회의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본 제안서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 시민의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것이 사실은 영어를 둘러싼 논의의 핵심이다. 따라서 대안은 서울시민의 영어 구사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모색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관련된 자료들을 어지간히 훑어보면서라도 재확인 할 수 있었지만, 미리 말해 두었듯이 지금 당장의 영어의 공용어화는 적절한 대안이 아니며,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두 손을 놓은 채로 있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 대안은 얼마든지 찾아질 수 있다.

대안은 한국어 환경 속에서 영어가 활용될 수 있는 '문화적 원-원 전략'을 개발해 내는 것이다. 마치 한글 윈도우 속에서 'MS Word'와 같은 영어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같은 문화적 전략을 개발해 내는 것이다. 그러나 'MS Word'는 어디까지나 한글 윈도우 속에 속한 종속 프로그램으로 윈도우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즉 영어 사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서울시의 한국어 환경 속에서 영어를 통해서도 자신들의 업무를 불편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영어 사용을 원하는 사람들의 서울시에서의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며 동시에 한국어 환경 자체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영어의 상용화는 바로 이와 같은 원리 속에서 착근의 방법을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계화 속에서의 영어'가 내포하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도 코드를 맞추기 위해 한국적

관행과 비효율적 업무 처리 방식에서 탈피한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서울시 특유의 업무 처리 문화'를 개발하고 그것을 점차 보급해 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굳이 선진국 기준 운운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서울시의 독특한 합리성을 새롭게 창조해 낼 수 있도록 관련 업체, 기관들과 협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영어 사용과 '서울시 특유의 업무처리 문화'를 소화해 낼 수 있는 개인, 기관, 점포, 지역을 선정하여 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제휴에 적극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 업무 실적에 따른 적절한 인센티브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전략적 제휴를 하게 될 대상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점포가 될 수도 있고 특정 지역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할 필요는 없다.

즉 한 부서 내에서라도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2개언어사용(Bilingual)이 가능한 개인을 선정해 영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또 기관이나 점포 등의 경우에도 특정 지역의 기관, 점포 전체를 2개언어사용(Bilingual) 직원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또 시범 지역을 선정, 영어 테마 거리로 만들어 그 지역에서는 영어만으로도 완벽하게 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이런 문화를 선호하는 사람은 그들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해당 개인, 기관, 점포, 지역을 찾을 것이고, 이런 문화를 선호하지 않을 경우라면(문화적인 이유에서건, 경제적인 이유에서건) 서울시의 다른 곳, 또는 같은 기관 내에서라도 다른 직원을 찾아 자신

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적과 상관없이 적어도 서울시에서는 세계 모든 시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해주자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공무원과 시민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기되는 영어공용화 주장과 크게 구별된다. 또 하나 구분되는 것은 단순한 언어 영역에서의 대안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정문화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문화적 걸림돌들을 자연스레 제거해 나갈 수 있다는 측면이다.

이렇게 할 경우, 우리의 말이나 글, 정체성의 훼손 문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동시에 세계화의 흐름에서도 자연스럽게 박자를 맞추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 전반적이고 급작스럽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적응해 나갈 시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험 과정을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의 영어 상용화 방안은 먼저 이와 같이 문화적인 정체성의 문제나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요구 모두를 동시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화적 원-원 기반' 조성의 전략을 토대로 그 실행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2. 영어상용화 실시를 위한 단계적 방안

여기서는 위의 '문화적 원-원 기반' 조성을 위해 문화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인가에 대해 다음의 몇 범주를 선정 그 시책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기본적 환경 조성

#### (1) 영어 상용화 추진 기구 설립

앞서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 제주도의 실패 사례 등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잘 준비된 행정력과 집중력을 갖춘 추진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관련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들의 충분한 이해가 새로운 언어 문화 조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합적으로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기구에는 시정 전문가, 시민, 외국인, 영어교육 관계자, 시의회 관련자 등이 참가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관리, 자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시에 중앙부처와 협의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것은 상용화 정책에 있어서도 한국어에 대한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영어의 상용화는 전반적인 공용화와 달리 상대적으로 우리말에 특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이 문제는 현실론과 함께 민족 감정도 함께 추스르면서 풀어가야 하는 현안인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 영어 상용화 정책 과정에 맞추어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는 국어 학자를 기구에 초빙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각 정책별로 적절한 어드바이스를 제공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영어의 활용이 한국어의 문화적 관용속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2)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 강화

영어의 상용화 조치는 필연적으로 보다 많은 외국인의 서울 방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들에 대한 한국문화교육에도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일방적으로 외국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익힐 기회를 제공해 그들의 서울에 대한 문화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심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등의 교육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한국어 강좌'를 보다 증설하고 관련 프로그램들을 적극 보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단순히 언어만을 통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문화적 감수성(Cultural Sensitivity)과 문화적 유연성(Cultural Flexibility)을 통한 상호 교류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영어가 가능한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인턴 등의 신분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간구해 젊은 세대들이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영어가 가능한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 (3) 해외인지도 제고

### ① 아시아 전통에 기반한 English-Seoul 문화 조성

이 글의 목적 자체가 의미하듯이 서울이 외국인 친화적 생활환경을 마련해 가고 있다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우려하듯이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의 조성이 무조건적인 서양 닻기로 치우쳐서는 곤란하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문화적 전통 유지와 영어 활용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싱가포르나, 상하이와의 문화 인프라 공유 관계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즉, 아시아 사회 특유의 문화적 전통이나 가치를 담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련된 인적자원 교류 등을 통해 영어 인프라에 관한 한 아시아의 선도 도시를 구축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상하이는 영어 사용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중국 최고의 영어 인프라를 갖춘 도시다. 해외 업무와 관련된 서류들은 이미 거의 '영어공용화'가 되어 있다. 게다가 공무원, 기업 직원들의 2개언어사용(Bilingual)화 등은 한국 사회의 평균치를 웃돈다는 것이 필자의 느낌이다. 또 외국인들이 상하이에서 영어 문제로 불편을 겪는 일 역시 많지 않다.)

이를 위해

\* SS in Asia  
(Seoul + Singapore, Seoul + Shanghai)

\* 3S in Asia  
(Seoul + Singapore + Shanghai)

같은 문화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서울이 영어가 가능한 도시(English-Seoul)일 뿐 아니라 아시아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영어 정보 터미널'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아시아를 선도하는 문화 인프라 개발  
서울시의 영어 상용화 시책은 자칫하면 서

울시민들의 영어 콤플렉스를 건드리게 되고 그로 인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영어의 상용화 정책이 단순히 세계화 흐름 속에서의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결과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 초청 프로그램(Learning Seoul Program)'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북한, 중국, 월남, 네팔 등지의 공무원, 학생들을 초청, 서울의 성숙한 문화를 익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때 초청 대상들은 모두 영어가 가능한 사람들로 선정해서 서울에 체류하는 동안 모든 교육과 정보 교환을 영어로 진행하도록 해서 서울의 문화 인프라가 다른 문화권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자부심을 서울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 각 지역별로 연계를 맺고, 원하는 가정에 민박을 유도하는 방안을 통해서 서울시의 문화적 역량이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외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서울시민들로 하여금 영어를 통해 선진 사회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워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영어를 통해 우리의 것을 다른 사회에 전달하고, 그들의 개발을 도울 수도 있다는 자부감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선도 도시로 자리 매김 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부수적으로 서울 시민들의 외국인과 외국 문화, 언어에 대한 배타적 시각을 교정해 가는 긍정적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서울 속의 영어 정보문화 거리 조성

영어를 상용화해 나간다는 의미는 결국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스탠더드의 적용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글로벌 스탠더드란 어찌 보면 하나의 문화로, 공식처럼 어떤 사안에 대입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연스레 그런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태도를 익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모델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즉 서울시의 특정 지역을 '자유스런 영어 사용과 룰 엄수 지역(English & Rule Area)'으로 선포해 영어 활용도를 집중적으로 높여 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 거리를 변형시키기보다는 미개발 지역을 새롭게 조성하는 방법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거리는 우선 도로, 교통 표지판 등의 기본 시설을 장애인 복지시설 기준에 맞게 적용시켜 조성한 후, IT 기술과 환경이 어우러진 건물들의 건축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외국인을 위한 원 스톱 민원업무 기관을 설립한 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타이완, 싱가포르 등과 연계하여 금융, 정보, 무역, 관광 관련 산업들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지역의 치안, 교통, 요식업 등의 서비스에는 최고 수준의 법규 준수를 유도 감독하고, 거리에는 영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하고, 2개국어를 말할 수 있는 안내원, 교통경찰을 배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세계인들이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거리로 홍보해 나갈 필

요가 있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이 만들어 놓은 유흥가 이미지나 이태원 같은 쇼핑거리 이미지가 아닌 새로운 차원의 정보문화 거리를 서울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자연스레 경험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거리는 개방(Open)과 신뢰(Credit)라는 사회자본의 축적을 서울시민에게 구체적으로 홍보해 가는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 ④ 세계 수준의 외국인 학교 설립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 중에는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질 높은 교육이 보장되지 않음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인 종합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즉, 초·중·고등학생이 함께 배우고 생활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다. 물론 세계적인 수준의 학교인 만큼 학비를 걸맞게 책정하고 또 교사들의 학력도 잘 고려해 선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녀 교육 문제로 서울 진출을 꺼리는 유럽이나 중동 등지의 외국인들에게 서울 진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⑤ 외국인 진료가능 양, 한방병원 확충

현재 서울 시내에 외국인 전용 병원은 없다. 단지 서울삼성병원 등 5개 의료기관이 외국인 진료를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외국인들은 언어 소통의 불편, 친절도 등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따라서 외국인을 위한 전용 병원의 설립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 하겠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서울 소재 민간 병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전담 진

료가 가능하도록 의사, 간호사, 원무직원을 배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단순히 영어를 구사할 줄 아는 의료인들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인들이 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만났던 친절하고, 설명을 자세히 해 줄 수 있는 인격과 능력을 갖춘 의료인의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또 이와 아울러 외국인 중에는 침술, 카이로 프랙틱 등에 흥미를 느끼는 경우도 많고, 또 중국인이나 동남아 화교들의 경우, 양방보다는 한방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고려, 한방 병원 중에서도 여건이 구비된 병원을 선정 외국인 전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⑥ 긴급 피난 및 구호 기관에 2개언어사용(Bilingual) 전문인 배치

많은 외국인이 지적하는 불편 중의 하나가 경찰서, 병원, 응급실, 소방서, 119 등에 영어 사용자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기관 종사자 중에서 영어 가능자를 특별 선발해 일선에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로부터 전문가를 특별 초빙해 해당 전문가들에게 특수 어휘와 표현들에 대한 특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선발된 전문가들에게는 특수한 능력에 걸맞는 인센티브가 제시되어야 한다.

#### ⑦ 다중이용 시설에 영어 사회봉사 인턴 배치

외국인이 서울시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함께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로는 언어가 불편해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여행, 관광, 숙박업, 음식점 등에 영어가 가능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사회봉사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은 외국인과 대면접촉이 많은 분야 종사자들에게 영어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특히 이 분야의 인턴직을 신청할 경우 사회봉사 가산점과 함께 학원 수강 시에는 교육 보조비를 지원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영어 관련 특별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하거나 해외 연수단을 모집할 때에 우선권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 (4) 문화 체험을 통한 영어 친숙도 제고

##### ① 청소년 영어 체험마을 조성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지적하고 있듯이 한국 사회의 학교에서의 영어 학습은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물론 영어를 '배우고 있을 뿐'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점의 지적은 따라서 그 대안 마련을 쉽게 만들 수도 있다.

가장 쉬운 대안은 청소년들에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청소년을 위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앞서의 '자유스런 영어 사용과 룰 엄수 지역(English & Rule Area)'과 유사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다. 즉 '자유스런 영어 사용과 룰 엄수 지역(English & Rule Area)'은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거리인 반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레포츠 시설, 공연장, 극장, 슈퍼마켓, 우체국, 은행, 패스트푸드 점포들을 유치한 생활문화 공간이다.

즉, 교통이 편리하고 환경이 쾌적한 서울시의 특정 지역에 이러한 공간을 조성해 청소년들이 자연스레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단체 방문도 유도해 국내에서의 해외 체험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지역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서울시에서 선발한 외국인, 또는 영어가 가능한 내국인으로 충당해 엄격하게 영어만을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거리에서 공연과 설명이 가능한 해외 문화 이벤트 팀도 유치해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대화장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물론 거리 곳곳에 2개 언어사용(Bilingual) 안내원을 두어 필요한 표현에 대한 즉석 'Q & A'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 수용인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공간 내에서 규칙을 잘 지키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 ② 지역별 청소년 영어 포럼 지원

현재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서울시의 각 동사무소 공간들을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영어 포럼 공간으로 재 조성하는 방안이다. 즉, 매주 토요일 오후 등을 이용,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포럼을 진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외국인들의 한국 문화 접촉에 대한 호기심과 자원봉사 정신을 활용해 각 구청별로 외국인 신청자를 받아 각 동사무소와 연계해 주는 방안이다. 만일 자원봉사자가 부족할 경우는 포럼을 이끌 수 있는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해 요일별로 각 동사무소에서 활동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가자는 부모를 동반한 어린이, 또는 초중고 청소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하는 영어 체험 시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③ 외국인과 서울 시민과의 교류 지원

서울시민 중 특정 산업이나 업무에 종사하며 포럼을 운영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함께 하는 경우, 같은 영역의 외국인과의 교류를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다. 즉 외국 기업인들과 함께 하는 포럼이나 사회봉사 활동 등을 선별해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거나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 ④ English 114 설립

이 방안은 서울 시민들이 영어 표현이나 문화와 관련된 문의가 있을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하는 것이다. 즉 필요한 기본 표현들을 컴퓨터에 데이터 베이스로 저장한 후 한국인의 질문에 따라 해당되는 표현을 들려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외국인과 맞닥뜨리거나 표현을 준비해야 할 경우에 적절한 표현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표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영어 상용화가 불러 오게 될 한국식 영어를 수정해 가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런 서비스는 싱가포르가 최근 새롭게 영어 수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때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전화를 외국인들에게 알려서 표현하고 싶은 한국어를 들려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5) 영어 교육의 질적 변화 유도

### ①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 확충

현재 서울시에는 908개의 초중등학교(학급수 32,060), 284개의 고등학교(학급수 10,525)가 있으며 현재 서울시가 영어 교사 연수를 위해 채용한 네이티브 스피커는 30명이다. 그러나 이 숫자는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특별 재원을 마련, 적어도 각 초, 중, 고등학교 당 1명의 네이티브 스피커를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숫자 역시 부족한 것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재원의 한계를 고려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도덕성이나 품성을 갖춘 네이티브 스피커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이다. 이를 위해서 미국, 캐나다나 호주, 미국의 교육기관들과 연계해 교사가 되기 위해 인턴십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거주지와 생활비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초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기간은 대부분 1-2년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 체류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다. 또 현재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 중에 학력이 갖추어진 사람들을 선발할 경우, 해외에서 직접 초청하는 경우보다 비용이나 시간이 크게 절약될 수도 있을 것이다.

### ② 재직 영어 교사 재교육

이미 재직 중인 영어 교사들에게 해외 연수 등을 통해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때 학교별로 연공서열별로 연수 기회를 차지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TOEIC 점수를 선발 기준으로 삼는 등 선발을 엄격하게 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선발에 2회나 3회 이상 떨어질 경우, 명예 퇴직을 유도해 보다 능력 있는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 ③ 『Seoul 교과서』 제작

영어 교육의 질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흔히 교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로서의 자체적 교과서 제작이다.

즉 한국어와 영어의 2개언어사용(Bilingual) 인재 양성을 목표로 동일한 내용의 교과서(사회와 문화만.)를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하여 한국인 교사와 네이티브 스피커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는 방법이다.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3학년 때부터 배우는 사회과목은 『사회』라는 기본 교과서 외에 『사회과 탐구』라는 과목이 더 있으며 내용은 각 시, 구별로 지역에 맞는 사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과 탐구』 교과서를 쉬운 구어체 위주의 영어로 번역하여 함께 묶어 두 번에 걸쳐 익히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초등학교 때부터 2개언어사용자(Bilingual)로 길러갈 수 있다.

중고등학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교과서를 번역하여 교실에서부터 2개언어사용(Bilingual) 시민으로 자라날 능력과 분별력을 길러줄 수 있다.

『Seoul 교과서』를 개발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현재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반대 여론의 '모국어 손상'에 대한 우려를 없앨 수 있다.

둘째, 외국 네이티브 스피커로부터 걸려지지 않은 서구의 가치관이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전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현실적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체계적인 2개국어언어사용(Bilingual)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넷째, 장기적 안목에서 실질적인 2개언어사용(Bilingual) 시민들이 우리 사회에 배출될 수 있다.

### ④ 서울시의 초·중·고 교사 신규 채용시 영어 시험 성적 제출

교육현장에서의 영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에서 신규로 채용하는 교사들의 경우, 과목과 상관없이 영어 시험 성적(TOEIC)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학생들을 일선에서 지도하는 교사들이 영어에 대한 살아있는 감각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어 사용의 확충을 보다 손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6) 서울시 공무원의 영어 능력 제고

① 서울시 채용 공무원의 영어 면접 의무화  
우선 계약직 및 개방형직위 신규채용시험에서 영어 면접을 실행하여 현장에서 외국인을 만났을 때 현안을 즉석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자를 선발한다.

면접이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의 성적 우수자들은 대부분 고시준비형 공부에 익숙한 유형들로 페이지 영어에는 강하지만 언어 구사력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새로운 인원을 선발할 때에는 영어 면접을 실시해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

## ② 서울시 간부 회의의 영어 자료 활용

고위 공무원들부터 시정을 영어로 이해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회의 때 우선 모든 시정 자료들을 영어로 번역해 한국어와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의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가능한 범주 내에서는 영어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우선 단계적으로 페이지 상에서의 2개언어사용(Bilingual) 문화에 적응해 가는 것도 솔선수범하는 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③ 승진, 해외 파견 등에 영어 능력을 기준으로 사용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 해외 파견 등에 영어 능력을 우선 고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단 공무원 조직 사회 내부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급별로 승진 연한을 제한하는 등 완화 조치와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다. 조직의 역량은 영어에 익숙한 사람이 많아지는 데서 비롯된다기보다는 영어에 익숙한 사람들과 덜 준비된 사람들과의 협조와 협력에 의해 극대화되는 이치를 잊지 않는 것이 보다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 (7) 시정 홍보의 한글, 영어 병행 서비스

### ① 오프 라인을 통한 한글, 영어 병행 서비스

내·외국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현안이나 외국인의 이해가 필요한 자료, 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홍보 사안에 한해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알리는 방안이다. 방법은 오프 라인의 경우 주요 문서를 영어로도 번역하여 필요로 하는 외국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 ② 온 라인을 통한 한글, 영어 병행 서비스

같은 내용의 문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SBS나 아리랑 TV로부터 시간을 부분적으로 구입, 서울 시정과 관련된 내용을 영어로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책이나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시정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 있는 전문 번역사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 V. 맺는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교류의 증가는 언어가 서로 격리되고 번역되고 경쟁하는 관계에 놓이는 격투장을 열었다. 이런 이유로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끊임없이 늘고 있다.’(장 피에르 바르니에, 2000)는 이야기는 서울 시민들의 선택이 무엇이어서 하는 가를 잘 요약해 주고 있다. 세계인과의 경쟁, 특히 동북아시아 도시들과의 경쟁의 한 복판에 선 서울시민들 역시 ‘끊임없이 늘고 있는’ 사람들 중의 하나가 되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당위성 앞에서 필자는 서울시가 영어를 공용어(Official language)로 삼기 위한 소모적인 논쟁에 빠져들지 말고 서울 시민들이 자유스럽고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용어(Public language)로 만들어 가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간추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시아 선도 도시의 이미지를 주도적으로 선점해야 한다.

둘째,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정체성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문화적인 오리엔테이션을 기반으로 영어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집중력 있게 실행해야 한다.

다섯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영어 상용화의 출발 초기에 서울시는 특별히 사명감과 지혜를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일부에서 내놓을 부정의 암시 속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2개언어사용(Bilingual) 문화를 만들어 낸다는 창의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족이지만 영어는 사실 필자에게는 불편한 존재다. 또 필자는 서울이 아닌 천안에 살고 있고 전공 역시 중국어다. 서울 사람들이 영어를 상용어로 하든 말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또 중국어만 가르쳐도 필자에게는 하루 하루가 바쁘고 벅차다. 하지만 천안에 살아도 영어는 나에게 중요한 언어 도구이며, 중국어를 전공하고 중국을 연구하고 중국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영어의 힘과 영향력은 오히려 무겁게 느껴진다.

영어를 말해야 하고 영어로 논문을 써야하는 일은 필자에게는 불편한 일이다. 하지만 이 불편한 존재가 앞으로 걸림돌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아가서 내 아이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을 더구나 원치 않는다.

그런 면에서 이 글에서 주장하는 영어 상용

화는 어쩌면 한가한 주장이기도 하다. 영어의 공용어화 같은 좀더 강력한 대비책이 우리 사회에 있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중국을 연구하는 이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새로운 가치관과 영어 능력을 통해 변모해 가고 있는 중국 젊은이들의 역량을 예측해보면서 현재의 대안이 느슨하다는 점만은 분명히 해 두고 싶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문화적 역량과 바깥 세계에 대한 이해, 우리 것에 대한 애착 등을 두루 고려해 볼 때 현 시점에서는 영어의 상용화 정도가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경일, 2001, 「나는 오랑캐가 그림다」, 바다출판사.
- 김세중, 2001, “공용어의 개념과 영어공용화 논쟁”, 『새국어생활』, 11-4: 5~20, 국립국어연구원.
- 김승곤, 2001, “한자 혼용과 영어 공용어의 허상은 버려야 한다”, 『한글사랑』, 16: 22~37, 한글사.
- 김영명, 2001a, “영어 공용어론의 정치적 의미”, 『새국어생활』, 11-4: 58~72, 국립국어연구원.
- 김영명, 2001b, “미국인이 되기 위한 전략”, 『사회비평』, 28: 158~175, 나남.
- 김영명, 2002a, “영어열풍의 집단광기”, 『교육비평』, 19: 56~64, 교육비평.
- 김영명, 2002b, 「나는 고발한다」, 한겨레신문사.
- 맥킨지보고서, 2003, 7. 23, 「동북아 금융중심지로서의 서울의 잠재력」, 맥킨지 서울사무소.
- 맹주영, 2000, “국제화와 중국의 언어변화”, 『한림대학교 제20회 국제학술연구발표회』, 20: 31~40, 한림대학교.
- 박병수, 2001, “언어학에서 본 영어 공용화: 언어 생태학적 시각”, 『새국어생활』, 11-4: 21~32, 국립국어연구원.
- 박이문, 2001, “영어공용론의 재검토, 21세기의 세계 언어 전쟁(정시호 저) 서평”, 『서평문화』, 41: 207~212,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북거일, 1998,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 문학과 지성사.
- 북거일, 2001, “영어 문제의 본질과 대책”, 『사회비평』, 28: 127~157, 나남.
- 북거일, 2003,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 삼성경제연구소.
- 서울특별시, 2003, “서울의 영어공용화 추진계획(안)”, 서울시 산업국 국제협력과.
- 서울특별시, 2003, 12, 「영어활용에 대한 서울시민여론조사」, 서울특별시 마케팅담당관실.
- 서정우, 2000, “영어교육, 형식논리를 벗자”, 『주간한국』, 1814, 한국일보사.
- 석용영, 2003, “영어 제2공용어 문제”, 『국회보』, 401, 국회사무처.
- 손원제, 2001, “영어인프라, 제주의 환상인가”, 『한겨레 21』, 362, pp. 18~20, 한겨레신문사.
- 송영웅, 2000a, “영어열풍: 영어를 제 2공용어로? 조기유학, 교육 위해 해외로 학원으로”, 『주간한국』, 1814, 한국일보사.
- 송영웅, 2000b, “영어는 경쟁력이자 생존조건”, 『주간한국』, 1814, 한국일보사.
- 송영웅, 2000c, “미국식 사고를 키워주는 ‘영어세상’”, 『주간한국』, 1814, 한국일보사.
- 송용희, 2000, “말로만 영어장려, 대책은 엉망”, 『주간한국』, 1814, 한국일보사.
- 시정곤 외, 2003, 「한국어가 사라진다면」, 한겨레신문사.
- 신일철, 2002, “‘애국가’를 영어로 부를 것인가: 국어 제 1공용은 당당한 민족적 권리다”, 『자유공론』, 395: 110~114, 한국자유총연맹.
- 안정현, 2001, “영어공용화를 위한 제언”, 『인문논총』, 57: 37~63,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영미문학연구회, 2002, “우리에게 영어는 무엇인가?”, 『안과 밖 12 특집』, 12: 9~85.
- 윤지관, 2001, “영어, 내 마음의 식민주의”, 『사회비평』, 28: 111~126, 나남.
- 이현복, 2001, “탐라, 언어식민 그림자”, 『한겨레21』, 359, 한겨레신문사.
- 장-피에르 바르니에, 2000, 「문화의 세계화」, 주형일 옮김, 한울.
- 정대현, 2001, “영어공용론자의 언어관과 문화”, 『새국어생활』, 11-4: 47~57, 국립국어연구원.
- 정성중, 2001, “21세기 새로운 영어교육의 실천방안”, 『교육제주』, 110: 81~85, 제주도교육청.
- 정시호, 2000, “영어 찬미자들에게 엄중경고함!”, 『신동아』, 487, 동아일보사.
- 정장열, 1999, “21C지구촌엔 영어가 공용어”, 『주간조선』, 1575, 조선일보사.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2001, 11, 「제주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 조동일, 2001, “문화적 관점에서 본 영어공용화”, 『새국어생활』, 11-4: 33~46, 국립국어연구원.
- 조동일, 2001,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망상」, 나남.
- 중앙일보미디어 인터내셔널, 2002, “비즈니스맨은 지금 영어와 전쟁중”, 『뉴스위크 한국판』, 12~16.
- 채희락, 2001, “영어공용화론 비판의 허와 실: ‘나는 고발한다’(김영명 저), ‘영어공용어화, 과연 가능한가’(한학성 저) 서평」, 『안과 밖』, 10: 337~348, 영미문학연구회.
- 최종호, 2001, “영어공용어론에 대한 소고”, 『인문논총』, 20: 43~67,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한학성, 2000, 「영어 공용화, 과연 가능한가」, 책세상.
- 한학성, 2002, “영어공용어 논쟁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비논리성과 위선”, 『교육한글』, 15: 157~182, 한글학회.
- 홍성화, “싱가포르의 언어정책”, 주 싱가포르 대사관 참사관(네이버 검색).
- 후나바시 요이치, 2001, 「나는 왜 영어 공용어론을 주장하는가」, 중앙M&B.
- “제주도국제자유도시 특별법”, 2002, 1, 특별법시행령, 시행조례.
- MBC방송국, 2003, 11, 2, “中國, 1부 슈퍼 파워 차이나(Super Power China)”, MBC스페셜 창사 특별기획 5부작.
- 매일경제, 2001, 7. 25, “영어를 제2공용어로 해야 무역강국 앞당길 수 있다”.
- 문화일보, 2003, 11, 6, “램프윌러, 삼성테스코홈플러스 재무부문장 인터뷰”.
- “공용화 설문조사”, <http://myhome.naver.com/komnaru/jinhak/sisa/englishgongyong.htm>.
- “영어공용화논쟁(조선일보 기사모음)”, <http://anu.andong.ac.kr/~soongu/word/bokkeuil.htm>.
- “영어 공용화 왜 허구인가?”, <http://csone.kaist.ac.kr/~angelove/Hangul/english.htm>.
- “普及英语口号的盲目性”, 温晋根, <http://ulango.yeah.net>.
- “英语考试 祸国殃民?”, [www.xhby.net/xhrbw/gb/content](http://www.xhby.net/xhrbw/gb/content).

“中国人的英语学习”，真的猛士，<http://club.pchome.net/2003/9/9107-515.htm>.

“中国人学习英语”，[www.xishu.com.cn/haoshu/2003-1/144.asp-25k](http://www.xishu.com.cn/haoshu/2003-1/144.asp-25k).

“中国的英语学习人口”，王卉，<http://club.pchome.net/2001/12/1>.

원 고 접 수 일 : 2004년 2월 17일

최종원고채택일 : 2004년 3월 3일